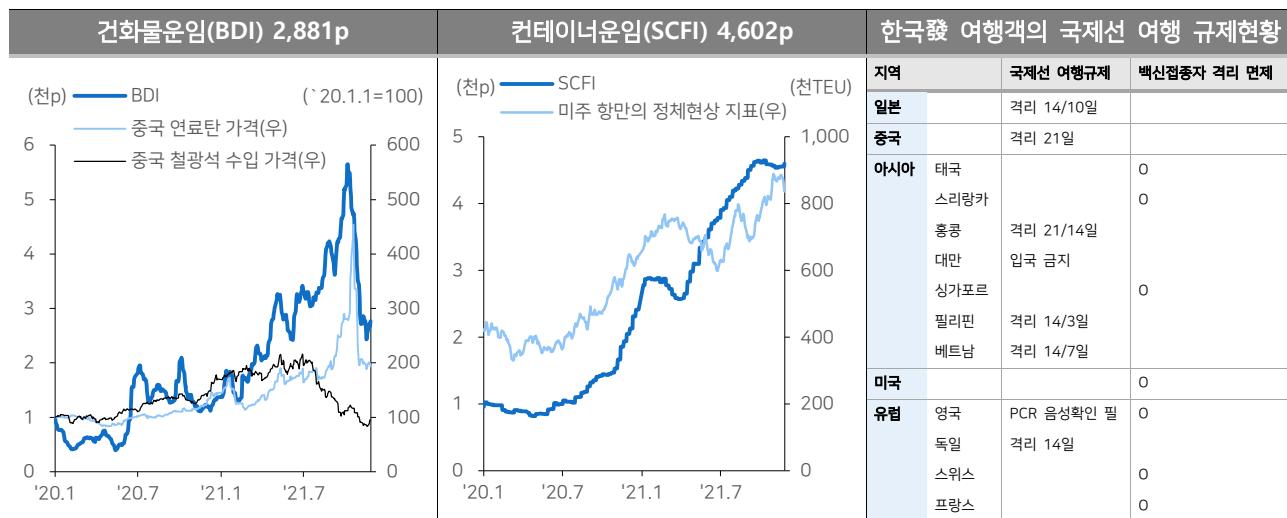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LA, Long Beach ports again postpone charging fee for lingering cargo

미주 서안의 LA항과 Long Beach항이 시설에 남아 있는 화물에 대한 벌금 부과를 다시 한번 연기했다고 보도됨. 관계자에 따르면 12월 6일까지 연기될 수 있다고 보도됨. 10월 25일 벌금부과에 대한 당국의 발표 이후 두개 항만 내 적치된 컨테이너들의 평균 체류시간이 감소했다고 보도됨. (Long Beach Business Journal)

Empty boxes taking up too much space? Try a foldable container

네덜란드 회사 4Fold는 자사의 폴더블 컨테이너를 통해 기존 빈 컨테이너들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 낭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힘. 해운 컨설팅 회사 Drewry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항만 내 8억 6,200만TEU의 컨테이너 중 27%가 공 컨테이너 상태라고 보도됨. 해운회사들이 이 컨테이너들을 옮기는 비용만해도 연간 200억달러라고 보도됨. (TradeWinds)

Green groups push liner operators on zero-emission shipping

환경단체들이 선사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고, 선사를 이용하는 주요 화주들에게도 해운업 내 zero-emission 달성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보도됨. Stand.earth and Pacific Environment는 15개의 주요 컨테이너선사들과 Walmart, Target, Amazon, 이케아 등에게 환경 목표를 위한 방법을 마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

한국공항공사, 에콰도르 만타이어 '과야킬공항' 운영권 노린다

한국공항공사가 에콰도르의 '만타'공항에 이어 최대 도시인 '과야킬' 신공항 운영권 사업을 노린다고 보도됨. 컨설팅 업체 '유신'은 에콰도르 현지 과야킬에서 신공항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고 보도됨. 수익성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경우 한국공항공사는 만타, 친체로 공항에 이어 중남미 지역의 주요 거점공항 운영권 사업을 이어가게 된다고 보도됨. (에어진)